

#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s :  
For Urban housewives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조미환

부교수 임정빈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 Cho, Mee Whan

Associate Professor : Im, Jeong Bin

##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설계 및 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rban housewives'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focusing on the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in continuum, to estimate the level of their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to determine the variables affecting family life satisfac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tendency is that the wives have controlled in value orientation, and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re neutral, and they are somewhat satisfied in terms of family life satisfaction.

2. As for the causal variables, marriage duration, the number of children, education, employment status of wives, and value orientation influence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3. The variables which affect family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are number of children, wives'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employment status of wives and value orientation.

4. In analyzing relation between wives'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nd their family life satisfaction, those who prefer morphostatic patterns have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5. From the path analysis, it was found that monthly family income, employment status of wives, wives' education level, and value orient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had negative effects on family life satisfaction.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가정관리란 가족의 가치, 목표, 표준에 근거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함으로써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목적적 활동이다. 가치는 가정관리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로서 가정관리의 투입요소와 관리활동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힘으로 작용한다(Shlater, 1967). 가정관리행동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서 가정내부와 외부에서 가정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체의 인간행동을 말하며(Schweitzer, 1968), 이러한 관리활동의 결과는 가족원들이 느끼는 정서적, 주관적 반응인 만족감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가정관리의 산출인 것이다. 따라서 한 가정의 관리자가 그 가정을 얼마나 잘 운영했느냐의 여부는 가족원이 느끼는 만족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피드백되어 가정관리의 투입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오늘날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가족의 가치, 목표, 자원 등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정관리행동도 사회적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관리자가 가정관리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관리행동유형이 달라지게 되며, 또한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만족감의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가정관리자가 지니는 가치는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가정관리자의 관리행동에 따라 가족원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달라지게 되며, 나아가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정관리연구에 있어서 동기요소인 가치와 수행과정인 가정관리행동 그리고 결과적

요소인 가정생활만족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주부들의 가치 및 가치성향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들어 가정관리행동연구에 환경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정관리행동을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와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정생활만족을 다룬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를 다룬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연구는 주부의 가치성향과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간의 관련성을 "투입-수행-결과"의 과정으로 파악하여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가치성향은 인간의 선택, 결정 및 행동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한 가정을 운영하는 가정관리자가 어떤 가치를 내면화시켜 수용하느냐에 따라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하는 관리행동은 달라지게 되며, 주부가 관리행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만족감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1. 주부를 대상으로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실태를 파악한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성향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성향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 가정관리행동유형은 가정생활만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5.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성향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주부의 가

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본연구는 이상의 연구과제를 통하여 가정생활만족 정도를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의 질적 향상 및 가정생활만족 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치성향

#### 1.1. 가치성향의 개념

가치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가치는 인간행동의 목표, 수단,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개념(C. Kluckhohn et al., 1967)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성향의 개념은 이러한 가치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데, Kluckhohn과 Strodtbeck(1961)은 가치성향을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순서를 정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본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시간관, 인간활동양식, 인간관계양식의 다섯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자연에 대한 순응적 지향, 자연과의 조화 지향, 자연에 대한 지배적 지향의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연순응적 지향은 자연의 힘에 대해서 운명론적 태도를 갖는 것이며, 자연과의 조화지향은 인간, 자연, 초자연을 하나의 통합체로 보는 것으로서 전체성 개념을 강조하고, 자연지배적 지향은 인간은 모든 종류의 자연의 힘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개인이 자연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자연순응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지배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과 직접 관련되는 개념은 가치보다는 가치성향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가치성향은 인간의 선택, 결정 및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 가정울 운영하는 가정관리자가 어떤 가치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 관리행동이 달라지게 되며,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만족감도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부들의 가치성향과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간의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1.2. 가치성향과 관련연구고찰

박미금, 장명옥(1985)은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을 고찰한 결과,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근대적일수록 우수한 가정관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정우, 오경희(1988)의 연구에서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주부가 대체로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Strumpel(1973)은 운명지향-통제지향과 인종, 직업집단, 경제적 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문 관리직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제적 가치를 지향하고 자기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경제적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성취를 조사한 이정우(1980)의 연구에서는 지배론적 가치관을 지닌 주부의 가정관리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치성향과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임정빈(1988)은 인본주의, 집합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사람이 인간중심적 의사결정양식을 택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임정(1988)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운명론적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일수록 가계 복지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연구에서는 주부들이 운명론적 가치와 통제론적 가치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가치를 운명론적 가치성향과 통제론적 가치성향으로 구분하고, 가치성향과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가정관리행동

### 2.1. 가정관리행동의 개념

가정은 인간이 최초로 접하는 생활의 장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생존을 유지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이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가족구성원이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가정생활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가정관리행동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은 가정이 소멸되지 않는 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가정관리행동의 개념(Gross, Crandall, Knoll, 1963; Schweitzer, 1968; Deacon, Firebaugh, 1975; Nickell, Rice, Tucker, 1976)은 1970년대에 체계적 접근법이 도입되면서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화되고 명료화되었다. Gross, Crandall, Knoll(1980)은 가족체계는 사회심리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이루어져 이 두개의 하위체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가정환경, 근접환경, 광역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하였고, Deacon과 Firebaugh(1980)는 가족체계는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나누어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하여, 가정관리행동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 뿐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가정관리행동이란 가정의 인적, 물질적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창조하여 가장 직접적으로는 가족원이라는 인적 근접환경과의 식주 등의 물질적 근접환경 그리고 광역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가족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2.2.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관련연구고찰

체계적 접근법 관점에서 보면, 가족체계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단순한 반응자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족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발전하려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또 이러한 역동성은 가족체계를 유지하여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려는 보수성과 폐쇄적인 면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융통성 및 개방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Broderick, Carlfred &

James Smith, 1979).

Buckely(1967)는 시스템 이론에 입각해서 시스템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가에 따라 시스템의 행동유형을 '안정지향형(morphostatic)'과 '변화지향형(morphogenic)'으로 분류하고, 안정지향형이란 시스템의 형태, 조직, 상태를 유지 또는 보존하려는 행동을 말하며, 변화지향형이란 시스템의 형태, 구조, 상태를 보다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려는 행동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Beard(1975)는 주부의 계획수립행동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용여부에 따라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고, 안정지향적 행동유형은 효율적이지만 목표 외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제한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는 반면, 변화지향적 행동유형은 가족체계를 성장, 발전시키는 생산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긴장과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조사한 조영희(1985)는 주부의 관리행동은 대체로 안정지향적인 유형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정우, 오경희(1988)는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과 관리행동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들이 후속연구(1989)로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관련변인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가 높고 결혼생활행복도가 높을수록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Beard(1975)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안정지향적 행동유형'과 '변화지향적 행동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과 가정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 3. 가정생활만족

### 3.1. 가정생활만족의 개념

만족을 개념화하는 문제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Burr와 Constantine(1979)은 만족에 관한 여러 정의를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만족은 개인이 갖는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의 정도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생활만족의 개념은 이러한 만족의 개념에서 도출될 수 있다. Medley(1975)는 생활만족은 기대와 그 충족도 여부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였고, 김명자(1980)는 생활만족이란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정의에 입각해 볼 때, 가정생활만족도의 개념은 가정생활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 혹은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치정도에서 느끼는 충족감(임정빈, 1988)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3.2. 가정생활만족과 관련연구고찰

중년기부부의 생활만족을 조사한 Hays와 Stinnett(1971)는 부인의 생활만족점수가 남편의 생활만족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고, 생활의 하위영역별로 볼 때 모든 생활영역에서 부인의 만족도가 남편의 만족도보다 높다고 하였다. 이기영(1984)은 주부가 인지하는 만족감, 즉 생활의 질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에서 주부들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정빈(1988)은 인본주의 가치성향이 크고 인간중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일수

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종숙(1989)은 확대기 가정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를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 남편은 가정의 경제상태와 자신의 직업 등 가정생활의 수단적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고 부인은 부부관계, 의사소통 등 정서적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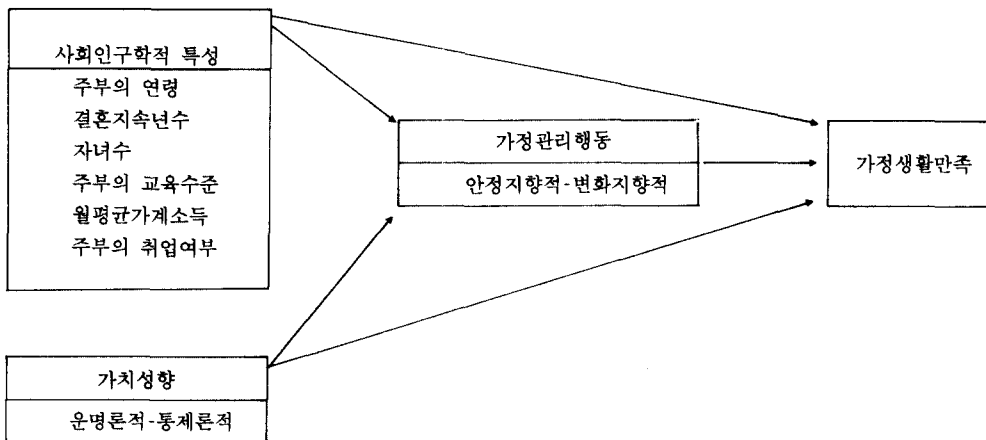
## Ⅲ. 연구설계 및 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서 본연구는 주부의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 가정생활만족은 “투입-수행-산출”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보고, 주부의 가치성향 및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따라 가정생활만족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부의 가치성향을 외생변수로,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을 내생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였다.

위의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주부의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 가정생활만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부의 가치성



<그림 1> 연구모형

향과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부의 가치성향과 가정생활만족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은 가정관리행동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5] 주부의 가정생활만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 3. 조사도구의 작성

본연구의 조사도구는 총 7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서 크게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1) 가치성향척도

본연구에서는 주부들의 가치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Brim(1962)등의 인식론적 신념과 도구론적 신념의 운명-통제 척도, 윌정혜(1986)의 인간-자연지향 척도, 활동지향 척도 중 본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선택하여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질문내용은 5점 리커트방식을 적용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님을 나타낸다.

#### 2) 가정관리행동유형척도

가정관리행동유형의 척도는 Beard(1975), 조영희(1985)가 사용한 질문내용을 기초로 하여 금전자원 및 시간자원에 관한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내용은 7점 리커트방식을 적용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 3) 가정생활만족

가정생활만족은 Hays, Stinnett(1971), 임정빈(1988), 이종숙(1989)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의사소통, 가사노동, 여가, 경제, 주거, 생활수준 등 9개 영역에 대해 각각 3 문항씩 구성하여 총 27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만족정도는 5점 리커트방식으로 측정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함을 나타낸다.

### 4.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기간 및 내용

본조사용 측정도구의 작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1990년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주부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삭제, 수정, 보완하여 1990년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가치성향 문항 12개,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문항 20개,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문항 27개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관한 1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문항별 신뢰도

변인	Crombach's $\alpha$
가치성향	.67624
가정관리행동유형	.69817
가정생활만족	.86759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소득 등을 고려하여 유층표집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한강을 기점으로 강북과 강남지역의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각 1개교씩 8개교를 정하고 대학교는 2개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1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457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한양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본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일원변량분석,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표 2>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약 47%, 40대가 약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주부연령	21 - 29세	5.3	월평균 소득	40만원 이하	3.6
	30 - 39세	46.6		41 - 70만원	19.3
	40 - 49세	41.1		71 - 100만원	25.6
	50세 이상	7.0		101 - 130만원	21.1
	계	100.0(455)		131 - 160만원	14.7
			161만원 이상	15.8	
	계	100.0(455)	계	100.0(450)	
자녀수	없음	3.9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	28.0
	1명	18.6		비취업	72.0
	2명	45.3		계	100.0(457)
	3명 이상	32.2			
	계	100.0(457)			
결혼3) 지속년수	9년 이하	26.2			
	10 - 19년	52.8			
	20 - 29년	17.5			
	30년 이상	3.4			
	계	100.0(439)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9			
	고졸	43.4			
	대졸 이상	40.7			
	계	100.0(457)			

주 2) 각 변인별 응답자수가 다른 것은 해당란에 무응답인 경우 삭제처리 하였기 때문이다.

3) 결혼지속년수는 ① 초혼이고 결혼한지 \_\_\_년 ② 별거 ③ 배우자 사망 ④ 이혼 ⑤ 재혼이고 재혼한지 \_\_\_년으로 나누어 표하도록 하였는데, ②, ③, ④, ⑤ 항목수가 적으므로 ① 항목만 사용하는 식별적 정보문항(identification information item)으로 사용하였음.

41%로서 이 두 집단이 전체대상자의 약 88%이다. 결혼지속년수는 결혼 후 10년 미만인 경우가 약 26%, 10-19년이 경과된 경우는 약 53%로서 이 두 집단이 전체의 79%이다. 자녀수는 평균 2.2명이며, 2명이 45%, 3명 이상이 32%로 이 두 집단이 전체의 87%이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이 43.4%로 가장 많고, 대학교 졸업이상은 약 41%로서 84%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월평균소득은 41만원 이하가 3.6%, 41-70만원이 19.3%, 71-100만원이 25.6%, 101-130만원이 21.1%, 131-160만원이 14.7%, 161만원 이상이 15.8%로서 각 소득수준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전업주부가 72%, 취업주부는 28%로서 이는 1985년 우리나라 기혼여성취업율 28%와 수치상으로는 같은 수준이

라고 하겠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의 일반적 경향

본조사대상 주부들의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가치성향은 약간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며(평균 41.45(만점 60점)),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평균 71.61(만점

주 1) 여성과 취업, 노동부, 1989.

140점)). 본조사대상 주부들은 가정생활에는 약간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평균점수 89.98 (만점 135점)).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치성향과 가정관리행동유형 과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 <표 3> 및 가치성향과 가정관리행동유형 <표 4>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은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지속년수가 10-19년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지향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관리행동을 금전과 시간의 관리대상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수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안정지향적인 경향을 보였다. 관리대상별로 살펴보면, 금전관리행동은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녀가 없을 때 가장 변화지향적 행동유형을 보이다가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

변인	구분	가정관리행동유형	금전관리행동유형	시간관리행동유형
주부연령	21 - 29세	75.18	34.14	41.05
	30 - 39세	72.17	31.25	40.72
	40 - 49세	70.80	30.14	40.66
	50세 이상	73.44	31.15	42.30
	F비	1.60	2.17	0.68
결혼 지속년수	9년 이하	75.29	33.83	41.47
	10 - 19년	69.66	29.41	40.25
	20 - 29년	71.63	30.38	41.25
	30년 이상	76.07	32.00	44.07
	F비	8.55***	9.55***	3.09*
자녀수	없음	80.17	36.94	43.22
	1명	72.12	32.07	40.05
	2명	71.19	30.15	41.04
	3명 이상	70.85	30.18	40.67
	F비	4.5*	6.01***	1.83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71.38	29.91	41.47
	고졸	70.51	30.11	40.40
	대졸 이상	73.48	32.28	41.20
	F비	3.76*	4.72***	1.35
	월평균 소득	40만원 이하	74.38	32.00
41 - 70만원		70.77	30.18	40.59
71 - 100만원		70.43	29.89	40.54
101 - 130만원		73.16	31.74	41.42
131 - 168만원		71.03	30.58	40.45
161만원 이상		72.54	31.85	40.69
F비		1.17	1.14	0.62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	75.51	33.14	42.14
	비취업	70.48	29.98	40.49
	T값	-4.99***	-4.41***	-2.98***

\*는 최소 p<.05의 유의도를 나타냄.



〈표 4〉 가치성향과 가정관리행동유형의 상관관계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	금전관리행동유형	시간관리행동유형
가치성향	1.000			
가정관리행동유형	-.148*	1.000		
금전관리행동유형	-.192*	.863***	1.000	
시간관리행동유형	-.023	.740***	.299**	1.000
평균	41.453	71.608		40.822
표준편차	5.746	10.520		5.562

로 안정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보였으나, 시간관리행동은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졸집단이 상대적으로 보다 변화지향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중졸이하집단, 고졸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별로 살펴보면, 금전관리행동은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변화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나, 시간관리행동유형은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관리행동을 금전 및 시간의 관리대상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관리행동을 금전 및 시간의 관리대상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도 같게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Beard(1975), 조영희(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부의 가치성향은 가정관리행동유형과 상당히 낮은 부(負)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이는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닌 주부일수록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치성향은 관리활동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Shlater, 1967),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닌 주부는 주변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뚜렷한 주관관을 가지고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한도 내에서 가족의 향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설정하며

또 이를 관리행동에 옮길 때에도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금전 및 시간관리행동과 가치성향과의 관계를 보면, 금전관리행동은 가치성향과 상당히 낮은 부의 상관관을 보이나, 시간관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볼 때 젊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주부인 경우에 변화지향적 가정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주부들은 변화하는 근접환경과 광역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녀수가 늘고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안정지향적으로 가정관리를 하게 되는 것은 가정관리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변화지향적 관리행동보다는 안정지향적으로 가정을 관리하게 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갖는 주부는 가정생활을 운영하는데 있어 뚜렷한 주관관을 가지고 자신 및 가족의 목표와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한다고 사료된다.

###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만족 및 가치성향과 가정생활만족과의 상관 관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만족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은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녀가 1명일 때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장 높으며 자녀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의 정신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자녀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만족

변 인	구 분	평 균	F비
주부연령	21 - 29세	85.33	1.90
	30 - 39세	91.18	
	40 - 49세	89.78	
	50세 이상	86.19	
결 혼 지속년수	9년 이하	90.11	1.15
	10 - 19년	91.62	
	20 - 29년	88.14	
자녀수	없음	82.39	2.86*
	1명	91.94	
	2명	91.36	
	3명 이상	89.10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84.50	7.91***
	고졸 이상	89.43	
	대졸 이상	92.64	
월평균 소 득	40만원 이하	83.77	7.01***
	41 - 70만원	85.24	
	71 - 100만원	89.73	
	101 - 130만원	90.78	
	131 - 160만원	93.21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	85.17	10.18**
	비취업	91.65	

\*는 최소  $p < .05$ 의 유의도를 나타냄.

수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가정생활만족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부의 연령 및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정생활만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Spurrier, 1973; 이정우, 1980; 이기영, 1984; 임정빈, 1988; 이종숙, 1989)를 지지해 준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가정생활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Hays, Stinnett(1971), 임정빈(1988)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은 취업주부

가 전업주부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역할부담이 그 원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본연구 결과에서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본조사대상 취업주부의 상당수가 비교적 직업지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에 어느 정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조사대상 주부 중 취업주부만을 선별하여 그들의 직업지위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직업지위가 사무직 이하인 집단이 전체의 약 7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 혹은 가정생활만족도는 취업동기, 직업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본인 자신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혹은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wis, Spanier, 1976 ; 이기영, 1984 ; 정혜정, 1986).

자녀수가 적고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은 주부의 경우에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산업사회의 복잡성과 요구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전업주부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Adams가 말한 신진통주의 역할구조에서 취업주부의 이중역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부의 가치성향과 가정생활만족 <표 6>은 상당히 낮은 정(正)의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통계론적 가치성향을 지닌 주부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론적 가치를 지닌 주부의 가정관리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이정우(1980)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4.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과의 상관관계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표 7>,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주부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관리행동을 시

간과 금전의 관리대상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주부는 가족의 내적, 외적 변화에 대처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이 도달할 수 있는 적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사용을 계획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므로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정생활만족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5. 연구모형의 검증

가정생활만족과 관련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가정생활만족의 이론적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로분석을 위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 변수는 응답자의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주부의 교육수준은 수학년수로, 월평균가계소득은 문항의 중앙값을 적용하였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가변수로 전환하여 직업이 있는 경우 1점, 직업이 없는 경우 0점을 주었다. 경로분석을 위한 중회귀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포함시켰다. 첫째, 가정생활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변

<표 6> 가치성향과 가정생활만족간의 상관관계

	가치성향	가정생활만족
가치성향	1.000	
가정생활만족	0.173*	1.000
평균	41.453	89.978
표준편차	5.746	15.084

\* p<.05

<표 7>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간의 상관관계

	가정관리행동유형	금전관리행동유형	시간관리행동유형	가정생활만족
가정관리행동유형	1.000			
금전관리행동유형	0.863***	1.000		
시간관리행동유형	0.740***	0.299**	1.000	
가정생활만족	-.254**	-.197*	-.217**	1.000
평균	71.608	30.785	40.822	89.978
표준편차	10.520	7.417	5.562	15.084

\*표는 최소 p<.05의 유의도를 나타냄.

량분석, t-검증 및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결과 가정생활만족에 의미있게 나타난 자녀수, 주부의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소득, 주부의 취업여부,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1차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산출해 본 결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원변량분석, t-검증 및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이 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주부의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소득, 주부의 취업여부, 가치성향을 독립변수로 하여 1차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실시하기 전에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1차 회귀분석결과 값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난 결혼지속년수, 자녀수를 제외한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월평균소득, 가치성향을 최종회귀식에 포함시켰으며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식을 다음과 같다.

$$FLST=b_0+b_1ED+b_2INC+b_3EM+b_4BE+e$$

$$BE=b_0'+b_1'ED+b_2'EM+b_3'VA+e'$$

b<sub>0</sub>, b<sub>0'</sub>: 상수 e, e': 오차

FLST=가정생활만족, BE=가정관리행동유형  
ED=주부의 교육수준, INC=월평균가계소득  
EM=주부의 취업여부, VA=가치성향

최종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 도식화해 본 결과 회귀가정을 만족시키고 있었으며, Durbin-Watson계수도 각각 2.03, 1.89로 잔차간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연구의 경로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인 가정생활만족과 관련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본연구의 최종회귀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표 9>와 같으며, 이를 인과도형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은 가정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beta = -.227$ ),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치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23, \beta = -.204, \beta = -.168$ ).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정생활만족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보여준다.

월평균가계소득은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 직접적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 = .249$ ), 이러한 결과는 소득은 가족자원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취업여부, 가치성향 등은 가정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beta = .140, \beta = .171, \beta = .129$ ),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침으로써, 가정생활만족에 있어 중요한 기본요인임을 시사해 준다.

<표 8> 변수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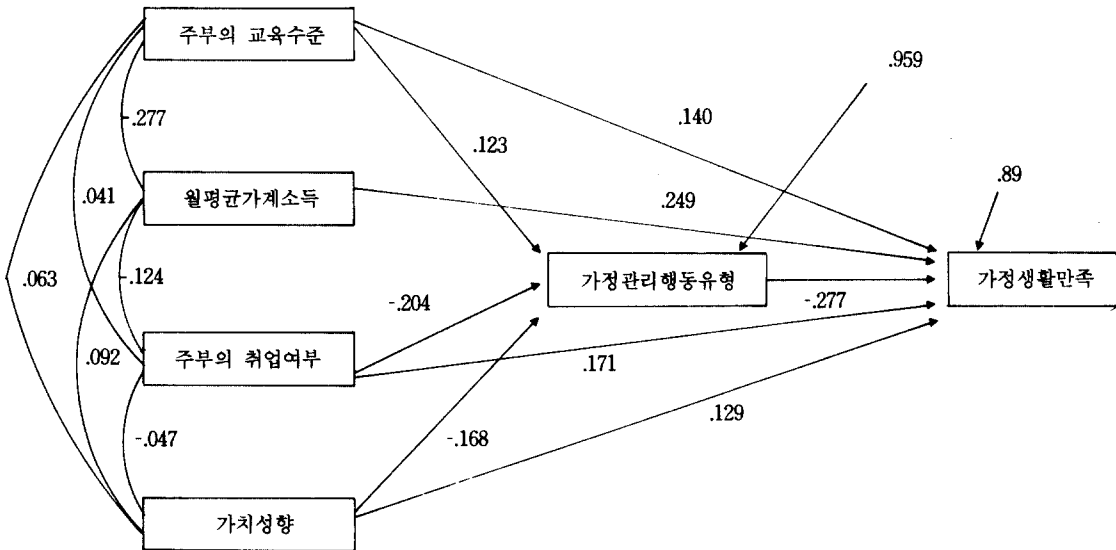
	1	2	3	4	5	6
1. 주부의 교육수준	1.000					
2. 월평균 가계소득	0.227**	1.000				
3. 주부의 취업여부	-.041	-.124*	1.000			
4. 가치성향	0.063	0.092	-.047	1.000		
5. 가정관리행동유형	0.122	0.026	-.204**	-.150*	1.000	
6. 가정생활만족	0.183*	0.273**	0.175*	0.188*	-.259**	1.000
평균	12.913	108.812	0.715	41.540	71.612	89.919
표준편차	2.770	47.706	0.452	5.730	10.603	15.186

N=466(listwise deletion), \*는 최소 p<.05의 유의도를 나타냄.

<표 9>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회귀계수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회귀계수( $\beta$ )	B	R <sup>2</sup>
가정생활만족도	월평균가계소득	0.249***	0.079	.207
	가정관리행동유형	-.227***	-.325	
	주부의 취업여부	0.171***	5.78	
	주부의 교육수준	0.140**	0.769	
	가치성향	0.129**	0.344	
가정관리행동유형	주부의 취업여부	-.204***	-4.790	.08
	가치성향	-.168***	-.309	
	주부의 교육수준	0.123**	0.471	

N=446(listwise deletion) \*\*p<.01, \*\*\*p<.001



<그림 2> 가정생활만족도의 경로모형

V. 요약 및 결론

본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본조사대상 주부들은 비교적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가정관리행동은 중립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는 약간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은 결혼지속년수,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및 가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지속년수가 10-19년일때,

주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일 때 보다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보였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전업주부일수록,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닐수록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행동을 금전과 시간의 관리대상별로 나누어 보면, 금전관리행동유형은 결혼지속년수가 10-19년일때,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업주부일수록,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닐수록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리행동유형은 결혼지속년수가 10-19년일 때, 전업주부일

때 상대적으로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부들의 가정생활만족은 자녀수, 주부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취업여부, 가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수가 1명일 때 가정생활만족 정도가 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전업주부일수록,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닐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간의 관계는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주부일수록 가정생활에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가정관리행동을 금전과 시간의 관리대상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

5) 주부의 가정생활만족 모형을 검증해 본 결과, 가정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가계소득, 가정관리행동유형, 주부의 취업여부, 주부의 교육수준, 가치성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가정생활만족을 20.7% 설명해 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본연구에서 택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성향은 주부의 가정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닌 주부일수록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한다는 것은 주부가 적절한 내적 통제를 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주변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뚜렷한 주관을 지닐수록 관리행동시에도 가족이 도달할 수 있는 적당한 목표를 설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행동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둘째,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는 월평균소득, 주부의 교육수준, 자녀수, 취업여부, 가치성향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Lewis와 Spanier (1979)의 주장처럼 교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역할기능에 유효한 자원이 많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고 가정생활에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가정생활만족의 경로모형에서 주부의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은 가정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중요한 매개변수로 밝혀졌다. 그리고 본연구가 설정한 '투입-수행-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통제론적 가치를 지닌 주부일수록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며 또 이러한 주부일수록 가정생활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가 적절한 내적 통제능력을 지닐수록 가족의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관리행동을 선택하며, 또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정생활만족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 가정을 운영하는 가정관리자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에 따라 관리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정생활만족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부의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 가정생활만족의 상호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관계를 '투입-수행-결과'의 과정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의 틀은 가정생활만족 정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제론적 가치성향을 지닐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볼 때, 주부들의 가정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본연구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서로 대립되는 유형인 안정지향형 과 변화지향형이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주부가 가정관리행동을 수행할 때 어느 방향으로 행동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주부의 교육수준 변수에서 대졸집단과 중졸이하집단이 변화지향적 행동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영희(1985)의 지적처럼, 이 두 집단은 행동을 유발하는 기본적 바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하나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가정관리행동연구를 위해서는 행동유형의 척도개발과 함께 다양한 통계기법의 적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본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는 가정관리행동의 대상을 가족자원에 근거하여 금전자원과 시간자원으로 제한하여 파악하였다.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확대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타당성있는 척도의 개발 및 정교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본연구는 주부의 취업여부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취업주부의 경우 직업위세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은 비교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은 취업여부 그 자체보다는 주부의 취업동기, 직업위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를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이러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연구는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의 실태과악과 아울러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이 가정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측정도구의 개발, 이 변수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적용 등 다각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김명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1982, pp.45-54.
- 2) 노동부, 여성과 취업, 노동부, 1989.
- 3) 박미금, 장명옥,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985, pp.1-13.
- 4) 윤정혜, 도시 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986, pp.67-88.
- 5) 이기영,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984, pp.67-88.
- 6) 이정우, 가정관리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0.
- 7) 이정우, 오경희,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문집 2,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88, pp.27-57.
- 8) —————,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988, pp.131-148.
- 9) 이종숙,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만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10) 임정빈,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11) 임정,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12) 조영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3) 홍두승, 사회조사분석법, 다산출판사, 1987.
- 14) Beard, D.M.,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Ph.D. Dissertation, 1975.
- 15) Brim, O.G., D.C. Glass, D.E. Lanvin and N. Goodman, Personality and Decision Process :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Thinking,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Ohio State University, 1962.
- 16) Broderick, C., J. Smith,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in W.R. Burr, R. Hill, F.I. Ney & E.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 17) Buckley, W., Sociology and Modern System Theory, Englewood Cliff : Prentice Hall Inc., 1967.
- 18) Burr, W.R., G.K. Leigh, R.D. Day and J. Constantine,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W.R. Burr, R. Hill, F.I. Ney & E.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 Vol. I,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 19) Deacon, E.R., F.M. Firebaugh, Home Management : Context & Concepts,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75.
  - 20) Deacon, E.R., F.M.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 Allyn & Bacon, Inc., 1981.
  - 21) Gross, I.H., E.W. Crandall and M.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New York : Appleton-Century Crofts., 1980.
  - 22) Hays, M.P., N. Stinnett,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1971, pp.669-674.
  - 23) Kluckhohn, C. & Others,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and E.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 24) Kluckhohn, F. & F. Strodtbeck,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linois : Row, Peterson and Co., 1961.
  - 25) Lewis, R.A., G.B. Spanier,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R. Burr, R. Hill, F.I. Ney & E.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 26) Nickell, P., S.A. Rice and S.P. Tucker, Management in Family Liv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76.
  - 27) Paolucci, B., O.A. Hall and N.W. Axinn, Family Decision Making :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77.
  - 28) Schlater, J.D., The Management Process and its Core 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59, 1967, pp.94-95.
  - 29) Schweitzer, R.V., Haushalts Analyse und Haushaltsplanung, Berlin, 1968.
  - 30) Spurrier, P.J.,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as Related to Knowledge of a Selected Group of Homemaker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73.
  - 31) Strumpel, B., Economic Life-Style,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 An Empirical Approach, in E. B. Shldon(ed.), Family Economic Behavior : Problems and Perspectives, Philadelphia : Lippincott., 1973.